

#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107**  
OCT 16 2019

발간년월 2019년 10월 16일 (통권 제107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양창호 총괄 이주호 감수 길광수 담당 김엄지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항만·물류연구본부 글로벌SCM 연구실 TEL +82-51-797-4665 FAX +82-51-797-4659



## 주요 동향

- 캄차트카 수산물 가공 복합단지, 생산라인 가동
- 노보로시스크 심해부두 건설...대형 컨테이너선박 정박 가능
- 러시아-터키, 양국 무역에서 자국통화 사용 합의...양국 경제 협력과 달러 의존도 경감 도모
- 카자흐스탄 카사간 유전, 일일 원유생산량 50만 배럴까지 가능
- 몽골 제품, 전자상거래 수출 길 열릴듯

## 이슈페이퍼

- 2020년 러시아 주요 운송 인프라 프로젝트 및 예산

## 주요 통계

- 2019년 8월 러시아 수역별 항만 물동량
- 2019년 8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별 규모
- 2019년 8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 2019년 1분기, 2분기 운송수단별 물동량
- 2019년 1분기, 2분기 러시아 대중교통 여객수송량



## 주요 동향



### 캄차트카 수산물 가공 복합단지, 생산라인 가동

■ 캄차트카 선도개발구역 입주기업인 ‘캄차트트랄프로트(Камчаттрал флот)’가 예정 기간보다 1년이나 빨리 수산물 가공 복합단지를 가동, 수산 가공품을 생산하기 시작함

- 설계 및 건설, 제품생산 등이 계획된 일정보다 빠른 기간에 실행될 수 있었던 것은 기업이 사용할 토지가 적시에 할당되었기 때문임
- 극동개발공사는 본 프로젝트에 약 23억 루블을 투자했으며 프로젝트를 통해 약 160개의 일자리가 창출됨
- 향후 약 350명으로 일자리 수를 확대할 계획임

그림 1. ‘캄차트트랄프로트’사 수산물 가공 복합단지



■ ‘캄차트트랄프로트’사는 안정적인 수산기업으로 러시아 내에 수산물 가공단지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임

- 또한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는 개선된 기술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제품생산량을 증가시키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
- 이를 통해 고품질, 저가격으로 제품을 생산해 러시아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함

■ ‘캄차트트랄프로트’사는 캄차트카 선도개발구역에 최초로 입주자격을 받은 기업으로 2018년 상반기에 수산물 가공 복합단지 공사를 시작함

- 2층으로 건설된 수산물 가공 복합단지는 약 9,000㎡ 규모로 수산물을 수용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생산라인과 보조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수산물 가공 복합단지는 연간 약 25,000톤의 완제품을 생산하는 동시에 약 450톤의 수산물을 수용할 수 있음

■ 현재 러시아에서 어획된 수산물의 2/3가 극동해역에서 어획되며 현재 수산자원가공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대규모 가공·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건설·운영되는 것은 캄차트카 변강과 극동지역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

김은미 현지 리포터 국립극동교통대학교  
(051-797-4776, usea1004@gmail.com)

# 노보로시스크 심해부두 건설...대형 컨테이너선박 정박 가능

## ■ 흑해 연안 유일의 심해부두가 노보로시스크에 건설되어 330미터 길이의 1만 TEU급 컨테이너선 정박 가능

- 노보로시스크에 해상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최초의 심해부두가 건설되었다고 <쿠반스키 뉴스>가 보도함
- 노보로시스크 심해부두는 길이 390미터, 폭 113미터, 깊이 15미터, 면적 4헥타르에 달함
- 델로 그룹(Delo Group)이 해당 프로젝트에 125백만 달러를 투자함
- 부두 설계 당시 노보로시스크의 악기후(지진활동도 규모 9.0, 풍속 최대 63m/s)를 고려해 27개의 방충재 및 14개의 계선주 외에도 추가적으로 계류 장치를 설치함
- 이러한 장치들로 인해 초속 19미터의 남, 남동 그리고 서풍에도 선박의 부두 계류가 가능해짐
- 중국기업 ZPMC에서 특수 제작된 STS 크레인 3대가 설치되었으며, 각각 시간당 28~30대의 컨테이너 하역이 가능함
- 창고 면적은 기존 1.2만 TEU에서 1.5만 TEU로 증가함

## ■ 심해부두 가동 이후 터미널 수용력은 기존 40만 TEU에서 70만 TEU로 약 2배가량 증가 예상

- 연방해상하천운송기관(Federal Agency for Maritime and River Transport)에 따르면 아조프-흑해 분지의 항만들은 2019년 상반기에 적자를 기록했으며, 해당 지역 물동량은 10.8% 감소해 총 1억 1,889만 톤을 기록함
- 건화물 환적량은 4,157만 톤(-28.3%)을, 액체화물 환적량은 7,732만 톤(+2.7%)을 기록함
- 한편, 작년 러시아 컨테이너 시장은 10%의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저렴한 운임의 해상운송은 여전히 장거리 운송 시 가장 선호하는 운송방법인 것으로 나타남

---

#### 참고자료

- a) [http://logirus.ru/news/infrastructure/novorossiysk\\_smozhet\\_prinimat\\_okeanskikh\\_gruzovykh\\_gigantov.html](http://logirus.ru/news/infrastructure/novorossiysk_smozhet_prinimat_okeanskikh_gruzovykh_gigantov.html) (2019.10.9. 검색)
- b) <https://yandex.ru/turbo?text=https%3A%2F%2Fkubnews.ru%2Fekonomika%2F2019%2F09%2F10%2Fv-novorossiyske-nachal-rabotat-edinstvennyy-na-rossiyskom-chernomorskom-poberezhie-glubokovodnyy-prich%2F&d=1> (2019.10.9. 검색)

# 러시아-터키, 양국 무역에서 자국통화 사용 합의...양국 경제 협력과 달러 의존도 경감 도모

## ■ 10월 4일 러시아 재무부는 터키 재무부와 함께 양국 무역에서 각각 자국통화인 루블(Ruble)과 리라(Lira)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 안톤 실루아노프(Anton Siluanov) 러시아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은 이날 베라트 알바이락(Berat Albayrak) 터키 재무부 장관과 회동하고 무역거래 통화를 러시아 루블화와 터키 리라화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것을 합의했음
- 무역거래에서의 자국통화 결제는 양국 금융시스템의 연결 확대에 발전할 수 있음. 양국 장관의 회동에서는 통화결제 합의 외에도, 터키 은행들의 러시아의 자체 은행시스템인 SPFS(System For Transfer of Financial Messages) 가입 및 러시아 중앙은행 신용카드 지불시스템인 '미르(MIR)'의 터키 내 사용 확대 방안도 포함되어 있었음
- 이를 통해 양국은 무역 거래에서 소요되는 달러화 환전 비용 절감 및 시간 단축, 그리고 부채 문제에 대한 상호 협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음. 양국 장관은 "이번 합의를 통해 러시아-터키 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으로 말미암아 확대될 것이다"며 긍정적인 기대를 내비쳤음

## ■ 이와 같은 자국화폐거래 확대는 또한 달러 기축통화 제도에 대한 양국의 의구심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 전통적으로 국제 무역 및 금융 거래는 달러 기축통화 체제와 국제은행 간 통신협정인 SWIFT(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Society)에 기반해 발전해왔음. SWIFT란 1973년 북미와 서유럽의 주요 은행들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은행 상호 간의 지급 및 송금 등을 위한 데이터 통신 교환을 위해 설립한 조직이었으며, 21세기 현재에는 전 세계 대부분의 은행이 가맹하고 있는 체제였음
- 그 결과 미국은 달러 주도의 국제경제체제에서의 우위를 점해왔으며, 동시에 이를 체제 수단 등 정치적인 무기로 활용해 왔음. 2013년 미국은 이란 핵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미국 연준 달러결제시스템인 페드와이어(Fedwire) 사용 금지 및 2018년 SWIFT에서의 이란 은행 배제를 통해 이란의 석유대금거래에 타격을 입힌 바 있음
- 현재 무역 분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 우크라이나 내전과 시리아 사태 확산 이후 제재 관계에 놓여있는 러시아는 SWIFT 체제를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음. 이런 맥

락에서 러시아는 SWIFT 대신에 SPFS라는 자국의 은행결제시스템을 만들며 미국과 대립 구도에 있는 국가들에 은행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게 된 것임

- 심지어 EU국가들 또한 미국의 행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하이코 마스(Heiko Maas) 독일 외무장관은 2018년 8월 “달러의 무기화에 대비하고 유럽의 무역 자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결제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고 촉구한 바 있음
- 이는 미국이 경상수지적자가 사실상 숙명에 가까운 기축통화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달러 패권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와 지지가 흔들리고 있으며, 언제든지 달러가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 따라서 양국 자국통화거래 확대와 러시아 은행통신시스템 확대는 지역적인 차원에서 양국의 물류 및 에너지경제 협력을 강화시키기도 하지만,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미국의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 움직임과 기축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믿음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겠음

조용성 현지리포터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7 981-198-65-06, mirinae2929@gmail.com)

---

#### 참고자료

- a) <https://www.aa.com.tr/tr/dunya/rusya-ve-turkiye-ulusal-para-birimi-kullanimini-artiracak/1605954> (2019.10.9. 검색)
- b) <https://denizxeber.az/2019/10/08/turkiy%C9%99-v%C9%99-rusiya-qarsiliqli-ticar%C9%99td%C9%99-milli-valyutadan-istifad%C9%99-ed%C9%99c%C9%99k/> (2019.10.9. 검색)
- c) <https://www.reuters.com/article/russia-turkey-forex/russia-turkey-agree-on-using-rouble-lira-in-mutual-settlements-idUSR4N26O04T> (2019.10.9. 검색)
- d) <https://dailyreckoning.com/the-world-is-ganging-up-against-the-dollar/> (2019.10.9. 검색)
- e)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20166622620776&mediaCodeNo=257&OutLnkChk=Y> (2019.10.9. 검색)
- f) <https://www.dw.com/en/germany-urges-swift-end-to-us-payments-dominance/a-45242528> (2019.10.9. 검색)

# 카자흐스탄 카샤간 유전, 일일 원유생산량 50만 배럴까지 가능

## ■ 카샤간(Kashagan) 유전은 카자흐스탄 영역 내 카스피 해 북부에 위치한 최대 규모의 유전으로, 현대화 시설 구축을 통해 점차 생산량 증대를 목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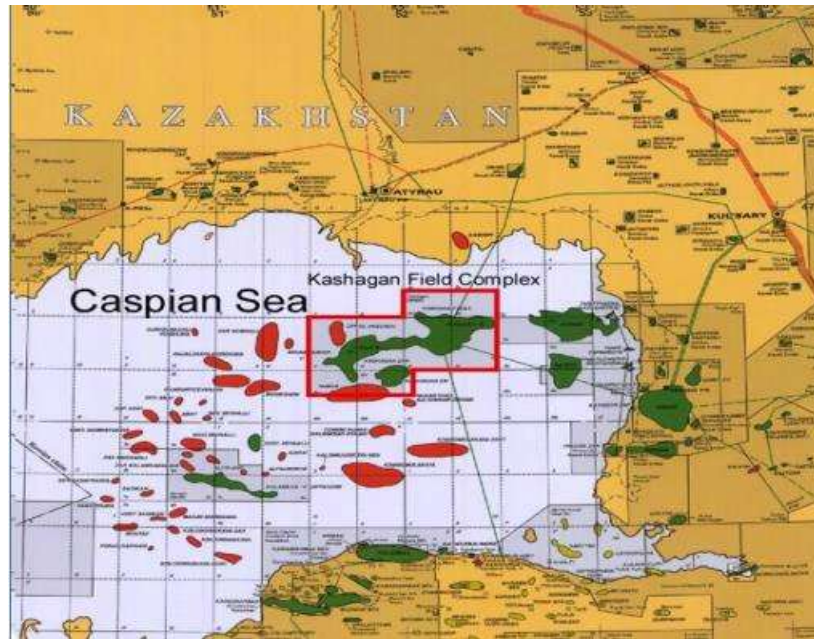
- 카샤간 유전은 인근 텡으즈(Tengiz) 유전과 함께 최근 30년 동안 세계에서 발견된 유전 중 가장 큰 규모의 유전임
- 카자흐스탄 정부는 독립 직후부터 카스피해 광구 조사 및 개발에 착수했는데, 여러 해에 걸친 탐사로 2000년도에 오늘 날의 카샤간 유전을 발견함
- 총 매장량은 380억 배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013년부터 생산을 개시해 올해 초 기준으로 일일 38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음
- 이러한 생산량은 올해 여름 42만 배럴로 재차 증가한 수치를 보였고, 여러 단계를 거쳐 지속적인 개발과 투자로 생산량을 증가시킬 계획임

## ■ 카샤간 유전의 생산량 증대에 앞서, 지속적인 개발 비용의 조달과 가공 부문의 생산성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지난 10월 2일, 카자흐스탄 에너지부의 마함베타 도스무함베토프(Makhambet Dosmukhambetov) 제1차관은 정부 기자 회견에 참석, 카샤간 유전의 일일 원유생산량이 50만 배럴까지 가능할 전망이라고 언론에 밝혔음
- 그렇지만 카샤간 유전 생산량 증대와 관련해 새로운 광구의 추가 개발과 최신 생산 장비 도입, 컨소시엄 진행 등 막대한 비용이 예상됨에 따라 카자흐스탄 당국들도 개발 프로젝트 자금 조달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카스피해 북부의 혹독한 겨울 기후와 해수면으로부터 상당히 깊은 매장 지점은 기술적으로 해결해야할 부분이 많으며, 원유 정제 중 발생하는 황화수소 가스가 파이프라인을 부식시키고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러한 점들을 완벽히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음
- 아울러 도스무함베토프 차관은 볼라샹(Bolashak) 육상 원유 및 가스 처리 시설이 50만 배럴에 육박하는 카샤간 유전의 생산량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카샤간 유전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이러한 가공 시설의 추가적인 구축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림 2. 카사간 유전의 위치



오상호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031-330-4145, editor405ca@gmail.com)

---

#### 참고자료

- a) <https://www.inform.kz/kz/> (2019.10.06. 검색)
- b) <http://caspiabarrel.org/az/> (2019.10.06. 검색)

# 몽골 제품, 전자상거래 수출 길 열릴듯

## ■ 몽골 정부, '국경 통과 전자상거래 계획' 수립

- 몽골 정부는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알리바바(Alibaba), 타오바오(Taobao), 위챗(Wechat) 플랫폼을 활용해 몽골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며, 이를 위해 중국 내몽골자치구에 위치한 바얀노르(Bayannuur)시와 협력할 예정
- 바얀노르시는 중국 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큰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며, 유명한 전자상거래 업체가 위치해 있고 관련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 협력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 ■ 몽골은 일차적으로 내몽골 지역에 전자상거래 형태의 수출 확대를 모색한 뒤 전 세계로 확대할 예정

- 바얀노르시의 경우 기후, 주민들의 생활양식이 몽골 지역과 비슷함. 내몽골 지역에서는 몽골의 캐시미어, 펠트 제품, 수공예품, 일부 식품 등의 수요가 많을 뿐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가까워 수출에 용이함
- 지난 4월 중국 시진핑 주석의 몽골 제품 수입 지지 취지의 발언을 계기로 본 계획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임
- 또한 본 계획은 중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향후 러시아와 동북아시아, 독일 지역까지 확대될 예정임. 러시아와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이며, 독일에는 올해 11월 본 계획을 소개할 예정

## ■ 현재까지 몽골에서는 전자상거래 형태의 수출 성과 미미

- 몽골 내 기업체들은 최근 30년 동안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전자상거래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음
- 2018년 유엔(UN) 사회경제위원회는 몽골 내 전자상거래의 법적·기술적 환경에 대해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현재 몽골은 관련 법률 및 정보보안법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몽골상공회의소가 제품의 통관, 수송, 보관, 결제 시스템 등의 문제를 맡아 지원할 예정

## ■ 몽골 제품의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 필요

- 몽골 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세관 및 검역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이며, 이는 몽골 내 수출 희망 회사들에게 큰 지원이 될 것
- 일차적으로 본 계획의 일환으로 세관 검사 절차 없이 수출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며, 또 육류, 유제품과 같이 검역이 필수로 요구되는 제품들의 수출 방안에 대해서는 양국 관련 기관 간에 의견을 교환할 예정

그림 3. 국경 통과 전자상거래 계획 소개



신민선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031-330-4145, editor405ca@gmail.com)

---

### 참고자료

a) <https://www.montsame.mn/mn/read/202796> (2019.10.8. 검색)



## 이슈페이퍼



### 2020년 러시아 주요 운송 인프라 프로젝트 및 예산

■ 러시아 정부 프로그램인 <운송 시스템 개발>은 연방 예산안에 따라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3조 3,600억 루블의 예산을 받을 계획임

-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2020년에 9,485억 루블, 2021년에 1조 1천억 루블, 2022년에 1조 3천억 루블로 나누어져 있음
- 이 중 철도 운송에 약 3,199억 루블, 연방 프로젝트인 <북극항로>에 324억 루블이 할당되어 있음

#### 1) 2020년 <북극항로> 프로젝트 투자 예산 - 약 173억 루블 예상

- 지난 월요일(9월 30일) 러시아 연방 의회에 제출된 프로젝트 예산안에 따르면 연방 프로젝트 <북극항로>에 대한 2020년 투자 예산액은 약 173억 루블에 달함
-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이 금액은 2019년 및 2020~2021년 연방 예산 법안에 명시된 지표 대비 9.4% 증가한 것임. 2021년도 290억 루블로 예상되며, 이는 현재 예산 법안보다 6.1% 적은 수치임. 2022년 예산 할당량은 약 755억 루블

#### 2) 북극항로 쇄빙선 <리더(Лидер)> 건조에 약 600억 루블 이상 투입 예정

- 120MW의 핵 쇄빙선 <리더> 건조 프로젝트에 대한 2020~2022년 예산 투자는 600억 루블 초과 가능성 있음. 이에 대해 2020년 및 2021~2022년 연방 예산 법안에 명시
- <리더>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 먼저 2020년에 247억 3,300만 루블, 2021년에 210억 80만 루블, 2022년에 147억 8,700만 루블의 투자가 나누어져 계획됨
- 쇄빙선 <리더>의 정부 발주자는 원자력 공사 '로스아톰'이며, 주문자는 연방 정부의 단일 핵 함대 기업, 핵 쇄빙선 건조 작업의 단일 이행자는 선박 건조 업체 '즈비즈다(Звезда)'임. 로스아톰의 부사장이자 북극항로 부서의 부서장인 바체슬라브 루크샤는 지난 9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로스아톰의 <리더> 건조 계약 체결은 2020년 상반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120MW의 쇄빙선 <리더>는 얼음 두께가 최대 4m인 북극항로를 365일 계속 항해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핵 쇄빙선임. 로스아톰의 사장 알렉세이 리하쾰프는 타스와의 인터뷰에서 차세대 최초 핵 쇄빙선인 <리더>의 건조 비용을 2019년 기준 약 1,200억 루블로 추정했고 산업통상부는 한계 비용으로 1,275억 루블로 제한하고 연방 예산에서 충당할 것이라고 밝힘
- 현재 40MW의 쇄빙선 ‘야말’, ‘바이가즈’, ‘타이미르’와 60MW 용량의 ‘승리 50주년’이 운항되고 있음. 또한 새로운 핵 쇄빙선 <프로젝트-22220>로 ‘북극’, ‘우랄’ 그리고 ‘시베리아’가 건조 중에 있음. 로스아톰은 <프로젝트-22220>의 일환으로 5개의 쇄빙선이 건조될 계획이라 밝힘
- 리하쾰프 사장은 4월 인터뷰에서 2024년에 로스아톰은 9,260만 톤의 선박 인술을 위해서는 현재 운항 중인 4척의 핵 쇄빙선과 3척의 일반 핵 쇄빙선인 ‘북극’, ‘우랄’, ‘시베리아’면 충분하다고 언급함

### 3) 2020년 러시아 항만 및 수로 투자 예산

- 2020년 <러시아 항만>에 투자 예산 금액은 340억 루블, 2021년에 678억 루블, 2022년에 35.6억 루블임
- 2020년 러시아 내륙 수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예산은 약 510억 루블, 2021년은 408억 루블(현재 예산 법안의 지표에 비해 4.4% 증가), 2022년은 464억 루블임

### 4) 러시아 철도 공사는 모스크바 운송망 개발을 위해 2020년 200억 루블 예산 배정

- 러시아 철도는 모스크바 수송 허브의 철도 인프라 개발을 위해 2020년에 200억 루블의 추가 예산 기금을 받을 예정임. 이는 2020년 및 2021~2022년 연방 예산안을 따르는 것임
- 중앙 운송망 개발 프로그램은 2019년 6월에 러시아 연방 교통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 프로그램에는 방사형 길과 모스크바 센터 순환도로(MLIK)의 통합 및 모스크바 센터 원형 지역의 생성과 개발이 포함되어 있음

### 5) 크림 철도 프로젝트

- ‘크림 철도’ 회사에는 2020년에 약 28억 루블의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
- ‘크림 철도’는 2014년 3월에 설립되어 크림 반도의 철도 운송 업무를 맡고 있으며, 2015년 말 연방 소유로 이전되었음
- 2019년 상반기에 ‘크림 철도’는 12,100대의 화차, 87만 톤의 화물을 운송했음. 전년 대비



13% 증가한 약 2백만 명의 승객이 철도 서비스를 이용했고, 2019년 말에는 크림 대교에 철도 운행이 시작될 예정임

그림 4. 크림 철도



#### 6) 2020년 노보시비르스크 도로 공사에 45억 루블 예산 할당

- 노보시비르스크 주는 2020년에 45억 루블을 들여 120km의 지역 도로를 재정비(도로 수리, 인도 구축, 사고 집중 구간 개선 등)할 계획임. 이에 대해 지역 도로교통부 차관 세르게이 스타비츠키가 지난 금요일(10월 11일) ‘안전한 도로 네트워크’ 공개 토론에서 언급함
- 2020년 지역 프로젝트 활동에 쓰이는 45억 루블은 11억 루블이 연방 예산, 28억 루블은 주 정부 예산, 5억 4천만 루블은 노보시비르스크 지역 도시들의 예산이라고 밝힘
- 2020년에 총 80개의 도로 구간이 개선될 것이며 그 중 27개 구간이 노보시비르스크 도시 내에 있음. 총 120km의 도로가 규범에 맞게 정비됨
- 국가 프로젝트인 <안전한 도로 네트워크>는 러시아 연방 83개 주체 중 104개 도시에서 이루어질 예정. 특히 2024년에는 (2017년 대비) 규범에 맞는 도로 구간이 43.1%에서 50.9%까지 증가하며, 도로 사고 집중 구간은 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또한 화물 차량이 정체되는 연방 및 지역 도로 구간이 10% 감소할 것임
- 지방의 국가 프로젝트 예산은 향후 6년간 4조 1,390억 루블로 추정되며 이 중 연방 예산이 4,409억 루블임

## ■ 아키모프 러시아 연방 부총리, 교통부에 <해항(Sea Ports)> 프로젝트 구체화 지시

- 막심 아키모프(Maxim Akimov) 러시아 연방 부총리가 교통부에 연방 프로젝트인 <해항(Sea Ports)>을 2주 내 구체화시키도록 지시. 이러한 사실은 ‘주요 인프라의 현대화 및 확장에 대한 종합 계획’의 운송 부문 프로젝트 위원회 회의 후 보도됨
- 안드레이 까스투 러시아 연방도로청장은 <해항(Sea Ports)> 프로젝트 내 러시아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일환으로 도로개선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함
- 도로건설 프로젝트는 <해항(Sea Ports)>의 하위 프로젝트로서 새로운 구간의 도로건설과 기존 도로확장을 통해 병목현상을 해결함으로써 화물이 항만으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연방 프로젝트 <해항(Sea Ports)>에는 9척의 쇄빙선 및 1척의 구조선 건조뿐만 아니라 항만 인프라 개발을 위한 41개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음
- 도로 접근 방식 개발을 위한 활동도 계획되어 있음. 연방 프로젝트 2024년에 따르면 러시아 항만의 수용 능력은 13억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최소 3억 3,600만 톤 증가)
- 연방 프로젝트 <해항(Sea Ports)>은 주로 민간 투자를 통해 구현됨. 러시아 연방 예산은 총 프로젝트 비용의 26%(2,376억 루블)에 불과함
- 프로젝트위원회 참여자들은 정부와 민간 투자자 사이의 상호 책임 확정을 위한 메커니즘의 부재가 연방 자금의 비효율적인 지출과 계획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논의함. 즉 정부가 새로운 항만 터미널의 **유압 구조**를 현대화했으나, 민간 투자자가 항만 터미널에 투자하지 않을 때, 또는 반대로 민간 투자자가 프로젝트를 실행했으나 도로 또는 철도의 운송 화물이 신고된 화물량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아키모프 부총리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패널티를 포함해 민간 투자자와의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연방도로청이 시행하는 도로 건설 및 재건 사업은 스칸디나비아(A-181), 홀모고리(M-8), 콜라(P-21), 카프카즈(P-217), 아스트라한~마하치칼라(P-215), 노보로시스크~케르치(A-290) 구간

그림 5. 아조프-흑해유역 & 북극해 유역의 〈해양(Sea Ports)〉



- 2019년 말까지 다게스탄 공화국 내 마하치칼라항이 위치한 카프카스(P-217) 연방도로 5 km 구간, 2020년에는 무르만스크항으로 향하는 콜라(P-21)의 5km 구간, 그리고 2021년에는 크라스나다르스크 변경 내 노보로시스크항 근방 노보시비르스크~케르치(A-290) 구간에서 작업에 착수할 예정
- 러시아 남부, 아나파항과 노보로시스크항을 연결하는 A-290번 도로 내 3개 구간의 재건 작업완료 후 운송능력 증가 예상

그림 6. 발틱해 & 카스피해 유역의 〈해양(Sea Ports)〉





- 2019년에는 <해항(Sea Ports)> 프로젝트 내 하위프로젝트인 총 107km의 연방도로 건설 및 재건을 완료할 계획임. 현재 프로젝트의 55%에 해당하는 58.8km 구간의 건설 및 재건이 완료되었고, 또한 2024년까지 308km의 연방 고속도로가 개선될 것임
- 막심 아키모프 부총리는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진행되나 <해항(Sea Ports)> 프로젝트의 초안을 작성한 지 1년 반이 지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부사항 재설계와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 예상하고 러시아 교통부에 프로젝트 검토를 지시함
- <해항(Sea Ports)> 프로젝트의 책임자는 예브게니 이바노치비 교통부장관이며, 시행일은 2018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남가영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neba95@naver.com)

김혜나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npaula@naver.com)

## 참고자료

- <https://ru.arctic.ru/news/20191001/879587.html> (2019.10.10. 검색)
- <https://tass.ru/ekonomika/6945746> (2019.10.10. 검색)
- <http://www.kremlinrus.ru/article/181/105518/> (2019.10.10. 검색)
- <https://infrastructure.wordpress.com/2014/03/26/new-rail-lines-in-crimea/> (2019.10.10. 검색)
- <https://futuresrussia.gov.ru/novosibirskaa-oblast-potratit-na-remont-dorog-po-nacproektu-45-mlrd-rublej-v-2020-godu> (2019.10.10. 검색)
- [http://logirus.ru/news/custom\\_and\\_ved/minselkhoz\\_sdelaet\\_eksportnye\\_stavki\\_na\\_soyu\\_i\\_raps.html](http://logirus.ru/news/custom_and_ved/minselkhoz_sdelaet_eksportnye_stavki_na_soyu_i_raps.html) (2019.9.23. 검색)
- [http://logirus.ru/news/custom\\_and\\_ved/selkhozeksport\\_dovedut\\_do\\_gotovnosti\\_subsidiyami\\_i\\_prochey\\_gospodderzhkoy.html](http://logirus.ru/news/custom_and_ved/selkhozeksport_dovedut_do_gotovnosti_subsidiyami_i_prochey_gospodderzhkoy.html) (2019.9.23. 검색)
- <http://ikar.ru/press/4294.html> (2019.9.23. 검색)



## 주요 통계



표 1. 2019년 8월 러시아 수역별 항만 물동량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18/2019 증가율
극동수역	11.27 (-1.3%)	6.67 (+0.2%)	17.94	-0.8%
북극해	2.96 (-1.1%)	6.11 (-4.7%)	9.09	-3.5%
발트해	9.42 (-0.2%)	11.19 (-1.3%)	20.61	-0.8%
아조프-흑해	9.91 (+1.2%)	14.7 (+1.0%)	124.6	+0.9%
카스피해	0.23 (+0.2%)	0.41 (-102.4%)	0.64	-0.3%
합계	33.78 (-0.2%)	39.08 (-0.6%)	72.87	-0.5%

\* 주: 극동수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올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비츠키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얀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표 2. 2019년 8월 러시아 극동 러시아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단위: 천 톤)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식료품 및 원자재	333,031.1	66,762.5	328,401.1	64,743.2	4,629.9	2,019.3
광물 제품	1,685,237.5	94,904.4	1,650,965.7	13,786.7	34,271.8	81,117.7
연료 및 에너지 제품	1,574,993.7	12,702.4	1,574,930.8	12,695.5	62.9	6.9
생고무 및 화학 제품	4,287.5	69,988.1	3,561.7	69,107.8	725.8	880.3
가죽원료, 모피 제품	18.7	2,563.4	10.1	2,544.3	8.7	19.1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83,105.5	8,323.4	82,211.0	8,239.7	894.5	83.7
섬유, 섬유 제품 및 신발	531.7	42,198.2	371.8	41,276.6	159.9	921.5
금속 및 금속 제품	39,630.0	72,877.2	39,514.2	68,755.9	115.8	4,121.2
기계류	138,901.6	402,907.0	137,767.2	401,049.5	1,134.5	1,857.5
기타	251,909.4	64,400.4	196,735.2	64,094.6	55,174.1	305.8
합계	2,536,652.9	824,924.3	2,439,537.9	733,598.2	97,115.0	91,326.1

\*주: CIS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표 3. 2019년 8월 러시아 극동 러시아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단위: 천 톤, 달러)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선어,생물	3	11,6	0	0	-	-	-	-	3	11.6	0	0
냉동어	113,120	1,424,705.9	275	38,321.5	319	466.3	-	-	113,438	1,425,172.2	275	38,321.5
연어류	23,274	185,700.4	-	-	0	0	-	-	23,274	185,732	-	-
넙치	737	17,760.0	-	-	-	-	-	-	737	17,760.0	-	-
가자미	741	11,984.5	-	-	-	-	-	-	741	11,984.5	-	-
가자미류	1,841	25,544.2	-	-	-	-	-	-	1,841	25,544.2	-	-
청어	8,721	55,873.8	-	-	299	374.7	-	-	9,020	56,248.5	-	-
대구	4,353	139,706.5	-	-	-	-	-	-	4,353	139,706.5	-	-
명태	60,583	737,243.3	-	-	-	-	-	-	60,583	737,243.3	-	-
농어	17	1,399.2	-	-	-	-	-	-	17	1,399.2	-	-
간, 곤이 (어란)	1,599	184,918.6	-	-	-	-	-	-	1,599	184,918.6	-	-
지느러미, 머리, 꼬리 등 생선부산물	650	10,270.4	-	-	-	-	-	-	650	10,270.4	-	-
생선필렛, 어육	2,727	138,207.6	82	2,339.6	-	-	-	-	2,727	138,207.6	82	2,339.6
건어, 훈제, 염장, 어분	82	1,179.4	138	4,123.4	-	-	-	-	82	1,179.4	138	4,123.4

갑각류	5,027	659,148.5	73	1,570.2	-	-	-	-	5,027	659,148.5	73	1,570.2
계류	4,144	596,737.8	-	-	-	-	-	-	4,144	596,737.8	-	-
조개류	3,163	43,582.6	-	-	-	-	-	-	3,163	43,582.6	-	-
가리비류	322	9,087.2	-	-	-	-	-	-	322	9,087.2	-	-
오징어류, 문어류	2,283	15,056.9	56	1,864.4	-	-	-	-	2,283	15,056.9	56	1,864.4
수산무척추동물	5,143	16,972.0	-	-	0	0	-	-	5,143	16,972.0	-	-
해삼류	428	21,543.6	-	-	0	0	-	-	428	21,544.0	-	-
성게류	189	4,182.7	-	-	-	-	-	-	189	4,213.1	-	-

\*주: CIS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표 4. 2019년 1분기, 2분기 운송수단별 물동량

(단위: 백만 톤, %)

교통수단	2019년 1분기	2019년 2분기	2018년 1분기 / 2019년 1분기	2018년 1~6월 / 2019년 1~6월
철도운송	1,422.2	1,714.00	99.2	99.4
자동차운송	319.0	315.30	100.7	98.4
해운	1,091.6	1,367.10	98.8	100.0
내륙수로운송	4.82	4.43	94.2	81.9
항공운송	6.49	26.91	96.1	82.6
파이프라인운송	0.241	0.29	94.0	95.7

표 5. 2019년 1~3월, 1~6월 러시아 대중교통 여객수송량

(단위: 백만 명, %)

교통수단	2019년 1분기	2019년 2분기	2018년 1~3월 / 2019년 1~3월	2018년 1~6월 / 2019년 1~6월
자동차운송(버스운송)	2,516.8	2,610.3	97.1	97.3
해운	1.080	1.5	68.9	64.1
내륙수로운송	0.336	3.4	89.7	76.3
항공운송:	24.751)	32.9	112.1	111.6
국내운송	14.81	18.4	108.1	109.2
철도운송:	260.0	315.5	104.7	103.5
교외운송 (도시운송 포함)	236.5	286.3	104.5	103.2

올가 연구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thkim@kmi.re.kr/051-797-4783)

#### 참고자료

- a) 러시아 극동지역 관세청 자료
- b) 러시아 교통부 통계 자료
- c) [http://www.morvesti.ru/detail.php?ID=80482&sphrase\\_id=2231358](http://www.morvesti.ru/detail.php?ID=80482&sphrase_id=2231358)(검색일: 2019년 10월 16일)